



# 계약사육을 통한 중추구입 비율이 늘고 있다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 1. 국내 중추사육 현황

초창기 산란계 사육 형태는 대부분의 농장에서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입, 육추실과 육성실에서 직접 닭을 길러 사육을 하였다. 당시에는 규모가 적었고, 전문적으로 중추를 육성하는 농장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사가 자동화, 전문화되면서 중추사육에 있어서도 분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추사육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채란계 농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연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중추농장으로부터 중추를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계사를 신축하는 농장도 중추육성농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쉽게 중추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추장을 추가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중추의 개념도 과거 중추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인 70일령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것이 80~100일령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110일령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되어가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추전문농장이 늘어나면서 중추유통 형태와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채란 농가에서는 우수한 중추를 공급받기 위해 부화장으로부터 직접 병아리를 구입하여 중추농장에 입추를 시키고 사료, 백신까지 농가에 맡기는 등 위탁사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중추사육 거래 형태를 보면 계약사육(위탁사육)과 비계약사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중간 중추유통업자들이 중추유통에 참여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약사육이라도 병아리만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약품, 사료 등 실수요자인 채란농장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모두 달라 서로간의 계약조건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 2. 전문 중추육성 판매 형태 60% 넘어

중추사육과 관련하여 본회 지부·분회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농장

에서 직접 병아리를 육성하여 채란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비율은 현재 39.5%로 추정되고 있다. 즉, 중추를 전문적으로 사육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남(20%)과 충청도(20.4%) 지역이 채란농장에서 직접 육추와 육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직접 중추를 사서 기르는 농장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리적인 영향

으로 인해 전북과 전남, 제주도는 아직도 60~80%에 이르는 농장들이 직접 병아리를 육추하여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양계농장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경기도의 경우 28.8%, 강원도는 30%, 경북지역은 35%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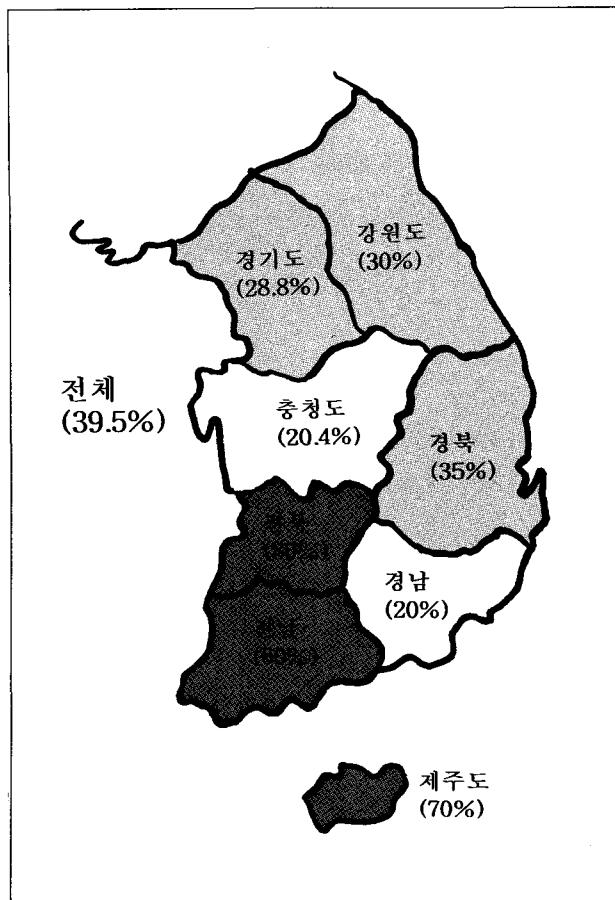
이는 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단위 양계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그리 많지 않으며, 실제로 20여군데에 이르는 양계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성사를 비치하고 있는 단지와 외부로부터 중추를 구입하는 단지의 숫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3. 중추육성의 문제점

#### 1) 무계획적인 병아리 입추

중추사육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단가를 보면 70일령 기준으로 최근 1,950원(병아리값 제외)을 받고 있으며, 80일령까지는 일령당 25원, 90일령까지는 30원, 100일령까지는 35원으로 10일령 당 5원씩 가격을 인상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단 90일령 이후부터는 백신비와 백신 접종비는 별도로 계산하고 있으며, 가금티푸스 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단가가 더 낮아지게 된다. 대형 중추전문 농장들은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계약하여 구입하다 보니 계약하지 않는 일반 사육농가들 보다 싼 가격에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병아리가 과일생산될 경우 일반



〈그림1〉 채란계농장의 중추 자가사육(중추를 구입하지 않고 직접 육성하는 농장) 비율

중추농장으로 덩핑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들어간 병아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산란계 농장으로 다시 덩핑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중추를 받다보면 완벽한 백신접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추를 받아 산란을 저하는 물론 질병발생으로 생산성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없이 중추육성을 하거나, 기초적인 백신프로그램의 지식없이 70일간 질병관리를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중추육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사사육 형태에 있어서 중추가격이 낮게 형성되거나 육계 가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될 때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중추사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위생적인 면에서 양계업 전체에 큰 위협을 주는 원인을 제

공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2) 쉽게 속고 속이는 중추 일령

계약사육을 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중추를 사육하는 중추농장은 대부분 병아리 일령을 속이면서 출하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추유통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문제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계약을 하지 않고 중추업자를 통해 중추를 받다보면 대부분의 농장들이 체중만을 가지고 닭 상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간업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기 일수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계입추를 며칠 앞두고 중간업자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닭을 확인한 후 닭을 구하거나 중간업자가 가져다 주는 대로 입추를 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중추소개만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중추사육농가에 판매해주는 것을 담보로 병아리를 여러 농장에 입추를 시킨 후 판매처를 물색해 중추를 처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상인들은 닭을 처분한 빈계사를 찾아 판매망을 넓



혀가고 있으며, 급하게 닭을 구하는 농가들이 이들의 좋은 표적이 되고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닭을 구입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깎게 되고, 제대로 백신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7~15일까지 일령을 속아서 중추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있어 문제로 대두고 있다. 만약 70일령된 닭을 비타민 제제 등 고단백 사료 등을 먹여 체중을 늘리는 방법을 써 15일까지 일령을 속여서 판다고 가정할 때 수당 400원을 더 주고 사는 꼴이 되므로 1만수 계군을 입추할 때 4백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폐사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종계장 관리가 아직도 소규모 농장에 위탁하여 사육되는 실정이다 보니 직접 병아리를 구입해 기르는 산란농장이나 중추전문농장에서는 병아리를 구입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티푸스 등 질병이 있는 닭에서 생산되는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해 준다든지, 병아리 분양 후 질병발생으로 문제 발생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추농장이나 산란계 농장으로 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생산자들이 손해를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병아리 폐사로 인해 국가 검역기관에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부화장과의 관계 등 여러문제를 들어 명확한 답변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할 경우 최소한 1주일 전에는 항체가 나와 중추

를 사육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중추를 70일령이 지난 후에야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종계·부화장은 중추업자는 물론 산란계업자들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종계·부화장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중추사육농장에서는 반드시 혈청검사를 해서 기록을 남기고, 백신 등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4. 중추사육의 발전방안

중추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산란을 하는 농가에서는 절실히 느낄 것이다. 중추육성은 산란성적을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중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체중관리, 철저한 백신접종 및 항체가 관리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농장 관리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체계적인 백신프로그램 등 품종에 맞는 사양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추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계획적인 생산과 입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체란농장은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중추를 받는 것이 농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위탁사육을 통한 계약사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약사육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진정한 계약사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정한 계약사육(위탁사육)의 의미는 위탁

자와 합의하여 입추일자를 정하고 좋은 품질을 구매하여 사육농가에 입추하도록 하며, 그 모든 사육에 있어서 백신계획과 점등, 사료 등의 모든 과정을 서로간의 약속과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성계사 입추 6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 중추농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추업자도, 유통상인도 아닌 채란농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사육을 통해 계획적인 중추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통업자를 통해 입추를 시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병아리 부터 위탁사육을 하는 것이 유통업자들과 무계획적으로 중추를 기르는 농장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추를 구입하는 채란농가들은 중추 사육비에 대한 생산원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가격은 낮아질 수 있는 소지가 높으며 중추사육업자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또한, 채란농장에서는 병아리는 물론, 사료, 백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기존의 소규모 중추 농장들은 경영난으로 업을 포기하는 농장들도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채란업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병아리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채란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산업이 건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범 업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계**

##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약취 및 해충란 제거

# 콕스틴-X

###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 설사병, 만성호흡기질병의 예방은 물론 적절한사용의 경우 치유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효과가 있습니다.

### ● 안전성 공인

- 총복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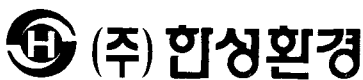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니플 막힘 해결

###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sub>3</sub> 750ppm이상 효과적, 안정화된 알킬배치 화학구조

### ● 약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약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



(주) 흥성황경

본사 문의전화 : (043)536-3342

홈페이지 : www.hsdrq.co.kr